

# 축산용 악취저감미생물 함평군 농가 만족도 80%

### 총 28톤 가량 악취저감미생물 축산농가 공급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보급한 '축산용 악취저감미생물'이 농가별 사용만족도 조사에서 80%의 긍정답변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센터 유용미생물배양실에서 올해 초부터 공급한 축산용 악취저감미생물이 지난 7월 한 달간 실시한 지역 축산 농가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 '악취저감에 효과 있다' 등의 긍정답변을 한 농가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효과가 있다고 긍정답변을 한 농가 모두 '지속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것

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저감미생물은 광합성균의 2종의 혼합균으로, 균주는 부숙된 퇴비, 사한 흙, 발효효소 등에서 분리한 토종미생물이다.

센터는 지난해 말 시험배양을 통해 해당 토종미생물이 축사 내 악취주요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를 각각 65%, 42%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 3월부터 신청자 전원에게 무상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총 28톤가량의 악취저감미생물을 지역 축산 농가에 공급했으며 실제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가 중

92%가 현재 매주 신청·공급받고 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가 축산용 악취저감미생물에 대한 효과를 인정한 만큼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며, "더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해 축사 인근 악취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악취저감미생물 배양액은 함평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뒤(매주 수, 목) 농가당 40ℓ씩 무상 제공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2061-320-2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경준 기자

## 나주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앞장



### 공익활동가 23명 양성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13일 제2기 나주시공익활동가 수료식을 갖

고, 공익활동가 23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예비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친 기본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야간 시간대 진행되는 교육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가의 역할, △마을에서의 인권, △신청지 탐방, △주민소통과 의사결정 등 30시간의 기본교육을 성실하게 마쳤다.

이날 수료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공익활동가들이 활동하게 될 읍·면·동의 관계공무원, 1기 공익활동가 등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 격려했다.

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생업여건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공익활동가라는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주시는 수료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열심히 갈고닦아온 역량을 마을 현장 곳곳에서 펼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화순군, 생물의약품산업단지 중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미세먼지 필터 역할 하는 녹지축 형성

화순군이 올해 정부추경 예산으로 국비 7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생활권과 연결한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를 통해 미세먼지를 차단·흡수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녹지축을 만들 계획이다.

계획된 위치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면 대기오염이 줄고 열섬현상도 완화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도시 숲은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0.9% 낮추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은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자연친화형 산업단지'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가 뛰어난 수종을 선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숲과 나무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도심 속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광군, 모시잎송편 관광체험특구 지정 주민공청회 개최



영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강영구 부군수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모시잎송편 관광체험특구 지정 신

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영광모시잎송편 관광체험특구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구 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보고자로 나선 (사)국가지역경쟁력 연구원 장효천 원장은 재배·가공·판매가 결합된 융복합형 커피관광체계 구축, 영광모시를 테마로 한 체험과 문화 중심 관광거점 스페이스 조성, 내·외부 교류의 장 마련으로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발전 목표로 하는 영광모시잎송편 관광체험특구계획안을 설명했다.

주요세부 사업으로는 색채형 오감 만족 관광인프라 추진, 모시잎송편 융복합 관광산업 확대, 영광모시잎송편 품질관리 및 경쟁력강화, 인적 물적 공간적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이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장흥군,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실시



장흥군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건강 관리 서비스와 보건교육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진찰하는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는 2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에서 매주 수요일에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적인 검사와 양·한방 의료진의 진료 상담 및 투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닥도닥 물리치료서비스'와

고 있다.

이밖에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측정 및 운동 실천 교육과 더불어 내혈압·내혈당 알기, 합병증 예방 교육,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흥군 보건소는 체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 형태 개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계하여 질 높은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호평을 얻

## 장성군,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서 고유제 봉행

장성군이 19일 필암서원 유동사에서 고유제를 봉행했다.

군은 이번 고유제가 필암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하서 김인후 선생에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고하는 의미를 지녔으며, 지난 7월 6일 유네스코의 등재확정 발표 이후 열리는 장성군의 첫 공식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부서 장성군수를 비롯해 김봉수 장성문화원장, 문영수 장성향교전교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유제가 열리는 필암서원 유동사는 김인후 선생과 그의 제자이자 사위인 고암 양자징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장성군은 고유제 봉행을 시작으로 추향제와 경서강독대회, 휘호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학술 출판행사도 기념비 제작도 추진한다.

## 담양군 드림스타트, 드론 체험교실 열어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드론 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험교실은 담양군 여성회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담양드론체험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드론 비행원리 및

안전, 드론 조종체형 등 이론에서부터 실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드론을 직접 조립해 보는 과정도 편성해 드론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체험에 참여한 아동은 "드론에 관

심이 있어도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강좌를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하반기에도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